대만 식품시장 가격인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소비성향 변화

■ 식품가격 인상 시 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고 불필요한 소비는 줄인다.

최근 대만에서는 식품, 요식업, 신선식품 등 제품들의 가격이 잇따라 인상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. 이처럼 식품가격이 인상되었을 때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게 되는 소비자들의 구매력 감소 이외에 어떠한 소비행위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았는데, 대만 식품전문잡지 "식력"에서 <평소에 구매한 식재료들의 가격이 인상되었을 시 소비행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>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59.7%의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대체제품 구입으로 응답하였으며, 69.5%의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식품 소비는 줄이는 것으로 응답하였다.

설문조사는 외식, 가공식품, 신선제품 등으로 구분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조사하였다. 외식에 관한 설문조사는 〈식당 음식가격이 인상되었을 시 소비행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〉에 대해 조사 결과 65.3%의 소비자들은 "외식비를 줄인다."로 응답하였으며, 63%의 소비자들은 "되도록 집에서 밥을 먹는다."로 응답하였고, 51.4%의 소비자들은 "식당에서 할인할 때만 이용으로 한다."고 응답, 7.1%의 소비자는 "아무런 변화가 없다."로 응답하였다.

가공식품에 관한 설문조사는 <가공식품 가격인상 시 소비행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>에 대해 조사 결과 69.5%의 소비자들은 "불필요한 소비는 줄인다."로 응답하였고, 53.4%는 "할인행사가 있을 때만 구매한다," 44.7%는 "집에서 직접 조리한다," 38.6%는 "할인행사가 있을 때 대량 구매한다," 3.9%는 "아무런 변화가 없다."로 응답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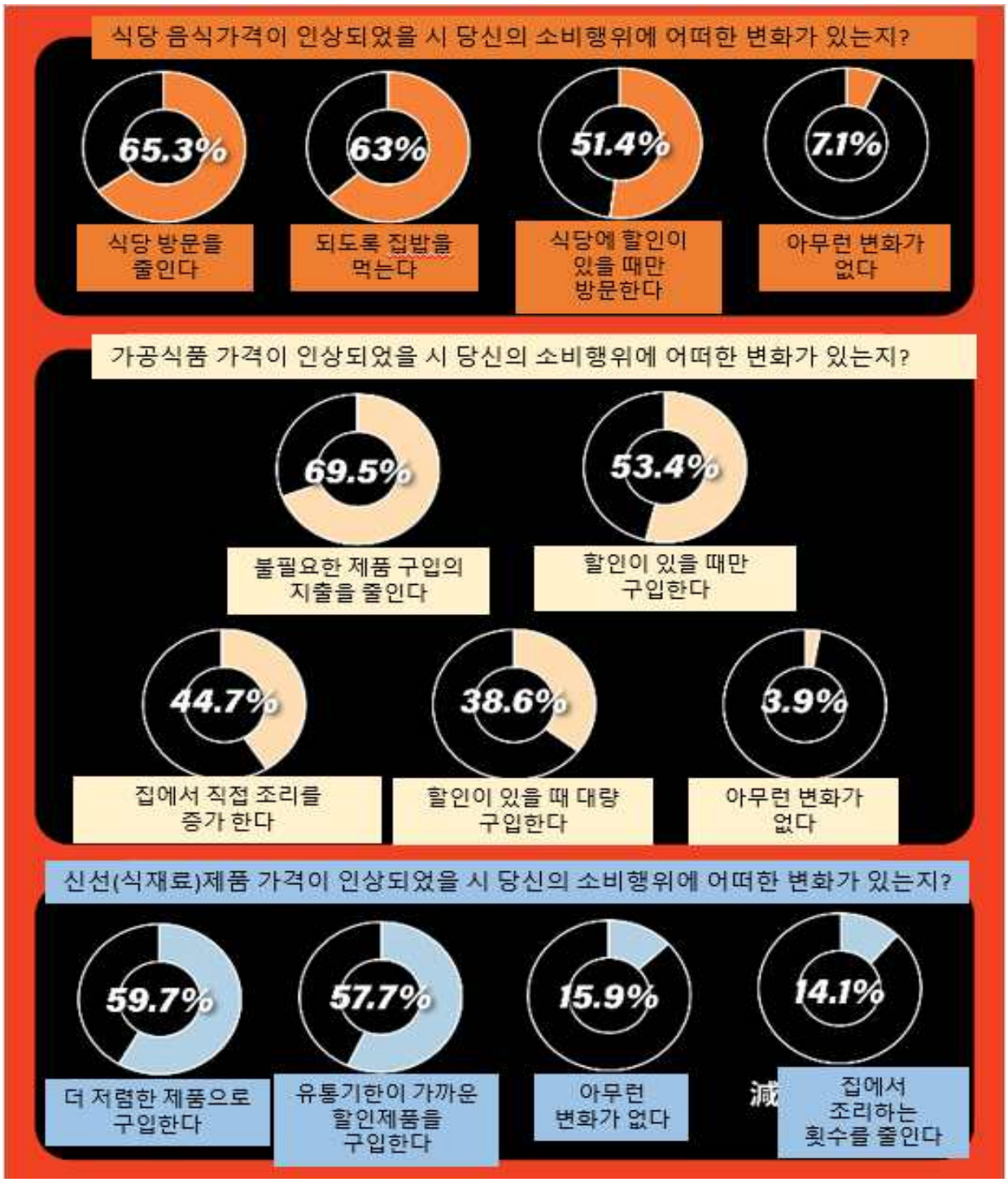
신선식품에 관한 설문조사는 <신선식품(식재료) 가격인상 시 소비행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〉에 대해 조사 결과 59.7%의 소비자들은 "더 저렴한 대체제품으로 구입한다." 57.7%의 소비자들은 "유통기한이 가까워지는 할인제품을 구입한다." 15.9%의 소비자들은 "아무런 변화가 없다."라고 답변했고 14.1%의 소비자들은 "집에서 조리하는 횟수를 줄인다."로 응답하였다.

■ 가공식품 가격 10% 인상 수용

<식품가격이 인상되었을 시 수용할 수 있는 가격인상 범위(%)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가공식품은 48.6%의 소비자가 10%에 해당한 가격인상 범위를 응답하였으며, 신선제품은 54.2%의 소비자가 5%에 해당한 가격인상 범위를 응답하였고, 외식비는 63.7%의 소비자가 5%에 해당한 범위를 응답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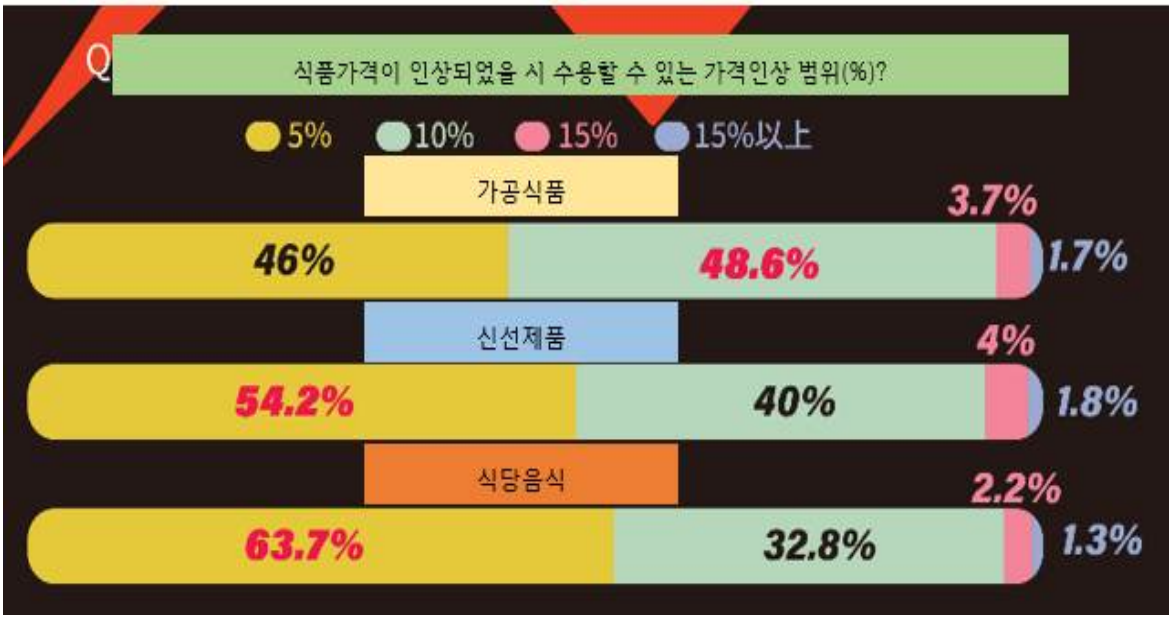
식품가격이 인상될 때 다른 국가 소비자들에게서도 이러한 소비성향 변화가 나타나는데 미국 The Wall Street Journal 보도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식품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를 때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구매하는 것보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식품 구매가 증가한다고 하였다.

<대만시장 식품가격 인상에 대한 설문조사>



복수응답 기준, 설문조사 응답자 : 1,060명

*출처 : “식력“ 온라인 설문조사



설문조사 응답자 : 1,060명

*출처 : “식력“ 온라인 설문조사

■ 시사점

현재 대만은 작년 12월부터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. 특히 식품업계에서는 가격이 인상되면 소비자들의 소비 감소를 우려하여 적절한 가격인상의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. 따라서 국내 수출업체들은 대만시장 진출 시 대만 소비시장 트렌드에 맞는 상품개발과 함께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현지 수입바이어 등과 다양한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.

자료출처 : https://www.foodnext.net/issue/paper/5616654566